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탄압 수단으로 자녀까지 겨냥... 쿠바, 목회자 아들 구금 논란



지난 3월 16일(현지시각) 쿠바 시에고 데 아빌라 주 모론에서 독립교회를 이끄는 엘리에르 무이르 아빌라 목사와 그의 16세 아들 조나단 무이르 부르코스가 함께 체포됐다. 아버지는 당일 석방됐지만, 중병을 앓고 있는 아들은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쿠바 전역이 7일 연속 정전과 극심한 식량 및 의약품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발생했다. 특히 3월 13-14일 모론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일부 시위대가 공산당 지역 사무실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총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국은 관련 소식 확산을 차단하기 위

해 해당 지역의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현재 조나단은 시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심문을 받고 있다. 아직 정식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중병을 앓고 있는 그의 건강 상태로 인해 가족과 주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버지 무이르 아빌라 목사는 ‘티엠포 데 코세차(추수의 시간)’라는 미등록 독립교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2024년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종교사무국 관계자들로부터 “당이 인정하는 교회와 목회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그의 교회 역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종교 자유 활동가이자 파트모스 연구소 대표인 마리오 펠릭스 레오나르트 바로소 목사는 이번 사건이 2021년 7월 전국 시위 이후 체포된 로렌조 로살레스 파하르도 목사 부자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례 모두 미등록 교회를 이끈다는 이유로 당국의 감시와 압박을 받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초에는 또 다른 미등록 교회 목사의 23세 아들이 강제 군 징집 대상이 된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쿠바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의 자녀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CSW의 옹호 담당 안나 리 스탕글 이사는 “중병을 앓는 16세 소년을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쿠바 정부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기보다 체포와 구금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평화적 시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중단을 촉구했다.

CSW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다”며 “쿠바의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립보서 1:28-29)

하나님,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목회자 자녀까지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미등록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일삼는 쿠바 정권을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핍박 가운데 있는 쿠바의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구금 상태에 있는 조나단 형제의 석방과, 위기에 놓인 쿠바를 위해 열방의 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쿠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중에도 은혜로 돌보시는 구원의 주를 높이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한국,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연합 집회... 4월 1일 국회 앞에서

한국 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다.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는 오는 4월 1일 국회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전국 교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법인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의심 단계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종교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종반위는 '정치 개입'과 '공익 침해' 기준이 모호해 교회의 집회나 사회적 발언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단과 교회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및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종반위는 이와 함께 한국 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지 말 것과, 더욱 연합하고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고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22-23)

하나님, 이단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범할 뿐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종교법인을 강제적으로 해산할 우려가 있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배후의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복음과 기도로 연합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교회가 한국과 열방 안에서 부흥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 파키스탄, 기독교인 환경미화원,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위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기독교인 환경미화원 이슈티아크 살림이, 자신은 부인하고 있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사형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2022년 온라인에서 이슬람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체포됐으며, 파키스탄 형법 제295-A, 295-B, 295-C조 등 신성모독 관련 조항과 전자범죄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제295-C조는 유죄 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조항이다. 살림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보석 신청은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현재까지 구금 상태다. 재판은 마무리됐으나 공동 피고인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은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기독교법률단체 ADF인터내셔널은 협박과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신성모독 혐의를 조작하는 이른바 '블래스퍼미 비즈니스 그룹'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부 법조인과 수사기관 협력 속에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인권위는 유사 수법으로 450명 이상이 표적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가 오랜 기간 심각한 결과를 낳아 왔으며, 1987년부터 2021년까지 1949건이 등록됐고, 이 중 다수는 무슬림 외에도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들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판결 이전에 사적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 사회적 위험도 큰 것으로 지적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편 56:3-4)

하나님,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한 영혼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에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사 고난 중에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예수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소서. 또한 이 땅에 신성모독 혐의를 조작하는 악한 자의 모든 계략이 실패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드러나는 땅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복음주의 지도자들, 마약 근절 위해 교회 역할 강화 다짐**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역 사회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가 최근 전했다. 특히 네비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지 교회 연합체인 네비스 복음주의 협회(NEA)는 지난 2월 초 세인트키츠네비스 마약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지역 사회에서 확산되는 마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교회와 마약(The Church and Drugs)’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회가 마약 예방과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EA 회장인 론 다니엘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만남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실시된 조사와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마약 사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나라를 돕기 위해 어디에서 개입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니엘 목사는 이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며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해로운 마약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리무 바이런-케인스 세인트키츠네비스 국가 마약 남용 예방위원회(NCDAP) 사무국장이 발표를 맡아 지역 내 마약 사용 패턴과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나딘 카티-케인스 네비스 에이즈(HIV/AIDS) 조정기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공동 발표자로 참여해 보건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다니엘 목사는 발표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됐고 활발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회들이 협력해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니엘 목사는 지난 2월 22일 웨슬리안 홀리니스 교회 세인트키츠 지역 감독으로 임명됐다. 이 지역에는 세인트키츠와 네비스를 비롯해 앵겔라, 사바, 세인트마틴 등에 있는 교회들이 포함된다. 그는 새 직분에 대해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큰 영광”이라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이사야 9:2)

하나님,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교회가 마약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짐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땅의 교회를 복음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카리브해 섬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불가리아 WEA, 로마계 복음주의 목회자교회 차별 우려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불가리아 내 로마계 복음주의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차별 의혹을 제기하며 종교 자유 보장과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WEA는 불가리아복음주의연맹, 유럽복음주의연맹과 함께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에서 불가리아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결과 채택 과정에 공동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WEA의 마르쿠스 호퍼는 불가리아가 종교 자유 강화와 차별 방지 권고를 수용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최근 정치 불안과 선거 부정 의혹이 로마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로마계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경찰 조치와 수사, 공개 비난 대상이 되는 등 차별적 대응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에서는 로마인이 오랜 기간 사회적 소외와 빈곤, 편견 속에 살아오며 범죄·비위생 등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혀 왔다. 여기에 다수 종교인 동방 정교회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로마 공동체 내 복음주의 교회들이 '비주류' 또는 '외래 종교'로 인식되며 종교적 편견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WEA는 이러한 상황이 종교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공권력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로마서 10:11-12)

하나님, 오랜 세월 편견을 받으며 차별을 겪어온 불가리아의 로마인 공동체가 최근 늘어난 정치적 혼란 속에 비난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로마계 복음주의 교회가 부당한 낙인 속에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함 없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소서. 불가리아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불가리아를 화평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과테말라, 수도권 제과점서 마약 발견... “밀매 조직, 일반 상업시설까지 침투” 신호

과테말라 수도권의 한 제과점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마약 밀매 조직이 일반 상업시설까지 깊숙이 침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를 인용해 보도했다. 과테말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22일 수도권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던 중 시내 제과점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과테말라 검찰청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최근 과테말라시 티, 믹스코, 비야누에바 등 수도권 지역에서 15건의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제과점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검찰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체포 인원, 압수물 규모, 제과점의 정확한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일상적인 ‘빵집’에서 마약이 나온 사실 자체가, 마약 밀매 조직 세력이 일반 상업시설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마약 단속을 강화해 올해 1분기 마약 관련 체포가 전년 대비 32% 증가하고 5,111명 이상을 검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잠언 1:32-33)

하나님, 마약이 일상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과테말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중독과 환각 등 삶을 파멸하게 하는 마약으로 사람들을 죄악에 내모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주소서. 마약 단속 중인 정부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에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 기도로 싸우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과테말라에 모든 영혼이 어리석음과 안일로 자기 삶을 죄악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시온교회 사건 변호사 면허 박탈... 종교 자유 우려 고조**



중국 당국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를 통해 베이징의 대표적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면허 취소나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 장카이(張凱)는 사건에 관여한 이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며, 다른 변호사들도 당국과의 면담에서 경고를 받거나 업무 제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서한을 통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금된 담임목사 진밍링(殷銘玲)의 딸 그레이스 진은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가족이 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 목사는 2025년 10월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같은 시기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지에서 시온교회 지도자와 신자 약 30명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 현재 그는 포함해 18명이 베이하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사건은 외교적·종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의회 인사들은 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중국 공산당이 국가 통제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목사는 2007년 시온교회를 설립한 이후 중국 가정교회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성장했다. 특히 2018년 당국의 예배당 폐쇄 이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최대 1만 명이 참여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는 당국의 감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 정부는 2012년 집권 이후 종교 활동과 시민사회를 강하게 통제해 왔다.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 단체만 허용된다. 개신교는 삼자애국운동,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만 인정되며, 이들 역시 감시와 검열을 받는다.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가정교회 신자들은 정부 등록 없이 활동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과 탄압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을 국가 승인 채널로만 제한하면서, 온라인 설교와 같은 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진 목사는 체포 이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공식 기소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로마서 8:36~37)

하나님, 중국의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을 압박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의 악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복으로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고난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 시간이 복되다 선포하게 하소서. 종교를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누리는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며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홍콩, 지미 라이 전기 판매 혐의로 서점 운영자 직원 체포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인 지미 라이의 전기 등을 판매한 혐의로 서점 운영자와 직원이 체포됐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 경무처(경찰)·국가안전처는 홍콩 삼수이포 지역 서점 ‘북 펀치’ 운영자 팡이밍과 직원 3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는 ‘선동 의도를 지닌 출판물임을 알면서 판매한 혐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장에서 관련 도서를 압수했으며, 그 중 지미 라이의 전기인 ‘트러블메이커’도 포함됐다. 지미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인 친민주 성향 매체이자 현재는 폐간된 빈과일보의 창업자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서방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지미 라이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전기의 저자인 마크 클리퍼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수감 중인 한 사람에 관한 책을 판매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린도후서 5:1-2)

하나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 정당들이 해산되어 사실상 민주화 운동이 어려워진 홍콩에서 계속된 억압과 통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중국 당국의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심령을 일깨우사 홍콩의 자유와 민주화를 향한 갈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확장되게 하소서. 그 땅의 교회가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전진하게 하소서. 홍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속히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아이티, 치안 붕괴 심화... 갱단 폭력에 10개월간 5,519명 사망

아이티가 정부 치안 붕괴와 갱단 세력 확장으로 극심한 무질서에 빠진 가운데, 지난 10개월간 갱단 정부 보안군-민간군사기업-자경단 간 충돌로 5,5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연합뉴스가 인포바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인권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 5,519명이 숨지고 2,608명이 부상했다. 201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못한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 기간 수많은 갱단 조직이 생겨나며 사실상 ‘비상시국’이 이어졌고, 갱단들은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며 수도권을 넘어 중부와 북서부 아티보니트주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10개월간 성폭력 피해를 본 성인 여성과 어린 소녀는 1,571명에 달했으며, 유엔 보고서는 갱단이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도 빈번한 가운데, 갱단 조직원의 30-5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21:5-6)

하나님, 국가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 이 땅을 친히 지켜주소서. 악을 도모하는 갱단의 심령을 꾸짖으사 악한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나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도와줄 이가 누구도 보이지 않는 나라 상황을 보며 깊은 흑암에서 건져줄 사람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임하사 주만이 이 땅의 소망과 피할 그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음세대와 모든 영혼이 죄로 인해 고통하지 않고 주의 보호와 사랑 아래 안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